

# 화물연대, 노조 지위 첫 인정...산업계 '예의주시'

## 노란봉투법 적용 시 교섭 요구·집단행동 확산 가능성 광주·전남, 자동차·석유화학 등 의존도 높아 '초긴장'

화물연대가 사실상 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광주·전남 산업계와 유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단이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 노조'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원청 기업에 상대로 한 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산업계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생산라인과 전남 석유화학·철강·농수산 물류망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편의점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

와 운송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화물연대를 실질적인 교섭 주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화물연대의 파업권·단체교섭권 인정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핵심은 특수고용직인 화물차주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화물차 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상 보호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조 활동의 정당성과 면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광주·전남 산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수도권 물류 갈등이 아닌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변수로 보고 있다. 광주는 자동차·가전 산업 비중이 높고, 전남은 여수국가산업단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철강·석유화학 물류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 자동차 생산시설은 부품 공급이 지연될 경우 생산 차질 가능성이 크다.

여수·광양권 화학·철강업체 역시 원료와 완제품 운송이 막히면 출하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유통업계와 자영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 서구와 북구 일대 편의점 점주들은 최근 CU 물류 차질 사례를 지켜보며 비상 대응 체계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서모씨(46)는 "광주·전남은 수도권보다 대체 물

류망이 부족해 배송 차질이 발생하면 체감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며 "신선식품과 도매 판매 같은 즉시 소비 상품은 하루만 막혀도 매출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배송 지연이 반복될 경우 소비자 물가에 도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운송료 인상이 유통단계를 거쳐 제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농수산물 이동량이 많은 지역인 만큼 물류비 상승이 장비구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계는 무엇보다 '도미노식 교섭'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화물연대는 주요 물류기업과 유통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택배회사와 배달 라이더 등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유사한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양항과 목포신항 등 전남 주요 항만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당시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에서 수조 원대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항만 반출입 차질이 재현될 경우 지역 수출기업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단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차주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물류 시스템에 종속돼 일해왔다"며 "그동안 운송료 결정이나 근로환경 개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통로조차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화물 노동자들이 유류비 상승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구조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광주·전남처럼 장거리 운송 비중이 높은 지역은 물류 노동자의 부담이 더 큰 만큼 최소한의 교섭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를 받는 만큼 노동3권 보장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교섭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오히려 극단적 충돌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에 정부의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산업계 간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섭 범위와 사용자 책임 기준이 모호할 경우 현상 혼란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경제계 관계자는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 제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물류망 안정 대책과 제도 정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은 제조업과 항만 물류 비중이 큰 만큼 작은 운송 차질도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현대자동차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Z세대 대표 캐릭터인 '르르르'를 활용한 다채로운 오프라인 행사를 연다. 지난 2일과 3일, 5일에 이어 오는 16일, 23일에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프라자에서 서울시 공공행사와 연계한 '르르르 X 책임'의 한강공원, 르르르의 시티투어 행사를 진행한다.

## 현대차 캐릭터 '르르르', 5월 오프라인 행사

### 대형 르르르 에어별론 전시·체험 행사 등 이벤트

현대자동차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Z세대 대표 캐릭터인 '르르르'를 활용한 다채로운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오는 16일, 23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시 공공행사와 연계한 '르르르 X 책임'의 한강공원, 르르르의 시티투어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대차는 행사 기간 6M 높이의 대형 르르르 에어별론 전시를 비롯해 서울시 마스코트 해지 캐릭터와 콜라보 리딩존(캠핑 의자) 운영, SNS 팔로우 및 포토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방문객들에게 팝

콘, 부채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는 9일과 10일 '르르르 X 현대 N 페스티벌, N 페스트북' 행사가 펼쳐진다.

현대차가 2019년에 창설한 모터스포츠 리그인 '현대 N 페스티벌'과 콜라보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한 르르르 영상 송출, 대형 르르르 에어별론 전시, 다채로운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르르르 부스 운영 등으로 진행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현대차, 원메이크 레이스 'N 페스티벌' 8일 개막

### 나이트·내구 레이스 첫 도입...4개 클래스로 진행

현대자동차가 8일부터 10일까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1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2026 현대 N 페스티벌' 시즌을 개막한다.

현대 N 페스티벌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된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개최된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을 계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다.

'원메이크 레이스'는 단일 차종끼리 트랙을 달려 드라이버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주 방식을 말한다.

이번 시즌에는 아이오닉 5 N eN1 컵

카(경주 차량) '그란 투리스모 eN1 클래스', 아반떼 N1 컵 카 '금호 N1 클래스', 아반떼 N2 컵 카 '넥센 N2 클래스', 아반떼 N3 컵 카 '넥센 N3 클래스' 등 총 4개 등급의 대회를 운영한다.

올해는 1라운드 개막전을 시작으로 6월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2라운드, 7월 인제 스피드웨이에서 3라운드, 10월 인제 스피드웨이에서 4라운드, 10월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5라운드와 최종 라운드까지 총 6개 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라운드는 TCR 아시아와, 4라

운드는 TCR 월드 투어 및 TCR 아시아와 공동 개최하며 글로벌 최정상급 TCR 대회와 함께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7월 11일 ~ 12일 인제에서 개최되는 3라운드에서 대회 최초로 나이트 레이스와 내구 레이스를 개최해 레이스 운영 포맷의 다양화를 꾀한다.

나이트 레이스는 야간 시간대에 경기를 진행하는 이색적인 운영 방식으로, 기존 레이스와 차별화된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내구 레이스는 선수와 팀단위 참여를 통해 국내 풀뿌리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현대차·기아, 글로벌 완성차 중 '압도적 1위'

### US 뉴스 '하이브리드·전기차 어워드' 7관왕 차지

현대차그룹은 미국 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6 최고의 하이브리드·전기차 어워드'에서 총 19개 중 7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3개 부문을, 제네시스가 1개 부문을 석권했다. 글로벌 완성차 그룹 중 최다 부문 수상이다.

현대차는 전기 SUV와 하이브리드 SUV에서 강세를 보였다. 아이오닉 5는 '최고 준중형 전기 SUV'에, 투싼 하이브리드는 '최고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에 선정됐다.

도 모델 모두 해당 부문 3년 연속 수상

의 기록을 세웠다.

아이오닉 5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과 뛰어난 주행거리, 첨단 안전 사양을 바탕으로 전기 SUV 구매자들에게 가장 스마트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47.7kW 전기 모터를 결합해 총 231마력의 우수한 성능과 탁월한 연비를 제공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아이오닉 9은 '최고 준중형 전기 SUV'에 이름을 올렸다.

기아 역시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압도적

인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니로가 '최고 소형 하이브리드 SUV'에, 스포티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가 '최고 준중형 PHEV SUV'에 올랐다.

US 뉴스는 니로에 대해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와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춘 최고의 가성비 모델"이라고 평가했으며, 스포티지 PHEV에 대해서는 "뛰어난 전기 주행 거리와 실용성,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모두 갖춘 차량"이라고 호평했다.

또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는 '최고 준중형 하이브리드 SUV'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아울러 제네시스의 전용 전기차 GV60은 '최고 준중형 럭셔리 전기 SUV' 부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